

천연양념 가공식품 시장 확산

마늘 등 분말가공제품 출시 ... 미원·농심이어 럭키 참여

마늘·생강 등 천연양념들을 가공·분말제품화하는 천연양념 가공식품 시장에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천연양념 가공식품 시장은 기존의 발효, 종합조미료 및 액체양념류 시장이 성숙에 접어든 것과는 달리 초기 형성기과정에 있는데 최근 미원·농심이 이 시장에 본격진출한 이래 조미료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한 럭키에서도 제품을 출시 예정중에 있어 시장이 가열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천연양념 가공식품 시장은 먼저 마늘가공시장의 경우 92년 약 70억원규모로 91년 약 55억원 시장에 비해 27% 증가했다.

생강 가공식품 현황		
제 조 기 업	판 매 기 업	상 품 명
동 일 산 업	삼 양 농 수 산	진생강
삼 양 농 수 산	삼 양 농 수 산	삼양생강
농 심	농 심	매코믹생강가루
고 제 미 원		조선순생강
동 일 산 업	럭 키	맛그린 생강

마늘 가공식품 현황		
제 조 기 업	판 매 기 업	상 품 명
동 일 산 업	동 일 산 업	동일육쪽마늘
동 일 산 업	동 일 산 업	서산육쪽마늘
동 일 산 업	동 일 산 업	순마늘
삼 양 농 수 산	삼 양 농 수 산	삼양마늘
신 농 신 농		마늘 다대기
농 심 농 심		매코믹마늘가루
고 제 미 원		조선 순마늘
오 토 스 파 이 스	오 토 스 파 이 스	오토마늘가루
두 산 농 산	두 산 종 합 식 품	종가집 마늘가루
동 일 산 업	럭 키	맛그린 마늘

생강가공식품 시장은 92년 약 30억원에 달했고 93년은 이보다 다소 증가한 35억원규모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천연양념 가공식품 시장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열풍건조제품을 출시하거나 라면기업들이 자체 소비용으로 생산·소비해왔다.

국내에서는 동일산업이 동결건조법으로 마늘가공 식품을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미원이 제품다양화의 일환으로 고제와 OEM방식을 체결, 시장에 진출했다.

농심은 매코믹사와 기술제휴로 마늘가루를 출시하기 시작했으며 삼양농수산·신농·두산농산·오토스파이스 등에서 제품을 생산·출시하고 있다.

최근 조미료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럭키에서도 동일산업에서 OEM으로 마늘가공제품을 받아 판매할 예정에 있다.

생강가공 식품은 삼양농수산이 "삼양생강"을 출시로 시장에 첫 진출했고, 동일산업·미원·농심·럭키 등에서도 제품을 출시 예정중에 있다.

현재 마늘 및 생강은 농산물보호대상 수입금지품목으로 이들 가공식품에는 전량 국산 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다.

천연양념 가공식품 시장은 사용이 간편하고 저장이 용이함에 따라 직장여성들 및 젊은 주부층에서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농산물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가의 외국 농산물이 수입, 원료단가가 하락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시장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